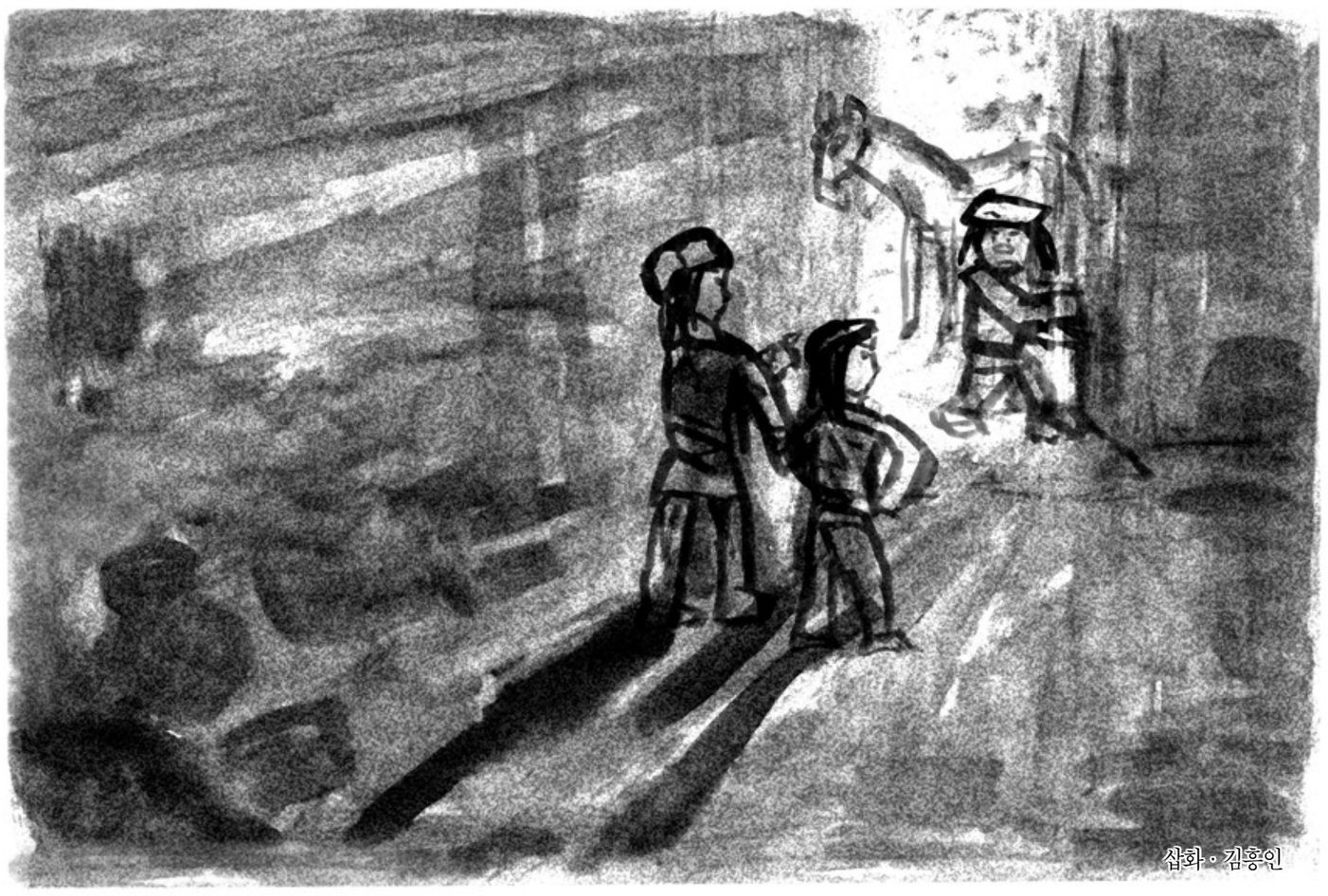
대체 왜 우리를 풀어주려는 거지? 무슨 수작이야?

수리아의 검-Ⅲ
고지연 불교 판타지 소설

사막의 세 머리 용 (4)


삽화 · 김홍인

무니는 그 한 마디에 언제 그랬냐는 듯, 문 아래에 놓인 열매를 주워 들고 다시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가지 끝에 달려있는 열매 하나를 따 입에 넣었다. 그런데 가지에서 이상한 게 눈에 띄었다.

"어, 이게 뭐야?"

무니가 먹던 걸 꿀꺽 삼키고는 접혀 있는 종이를 들어 보였다. 그건 나뭇가지에 묶여있었다. 순간 난다가 눈을 반짝하더니 친구의 손에서 종이를 낚아채 "편지 같은데…."하며 펼쳐 읽기 시작했다. 내용은 간단했다.

"밤에 문을 열어줄 테니, 조용히 기다려?"

"문을 열어준다고? 도대체 누가?"

난다가 대답 대신 무니를 빤히 쳐다봤다.

"아! 맞다. 네가 알 리가 없구나. 뭐, 아무튼 편지를 쓴 사람이겠지. 그런데 가둘 땐 언제고 또 풀어준대? 이 사람들 뭐 하자는 거야. 머리 아프게."

"그러게 말이야.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어가는 걸까?"

난다가 무니의 생각을 물었다. 무니는 대답 대신 열매를 한 입 가득 넣었다. 그로서도 알 수 없긴 마찬가지였다.

드디어 밤이 찾아왔다. 바깥에서는 어제처럼 희미한 달빛만 들어올 뿐, 아무런 기척도 느껴지지 않았다. 두 사람은 벌써 몇 시간 째 침묵 속에서 시간이 흘러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무니는 또 다시 얼음의 성에서 탈출하던 때를 떠올렸다. 말없이 보냈던 며칠과 자신을 등지고 앉아있던 칼키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했다. 그는 헤어지기 전 무니의 눈을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었다. "역시 네게선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아. 과거도 미래도 말이야. 그렇게 넌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겠지. 친구, 아마 그런 이유로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거야." 무니는 옷 안 쪽에 감춰진 목걸이를 꺼내 매만지기 시작했다. 그 목걸이엔 원래 있던 검 조각 말고도 칼키가 그의 손에 쥐어준 또 하나의 검 조각이 끼워져 있었다. 그는 '괴로움이 없는 연못' 바닥에서 이걸 주웠다고 했었다. "지금 그 목걸이에 걸려있는 것처럼 이것도 네게 꼭 필요할 거 같아서. 아마도 네가 먼 길을 떠나온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겠지. 무엇에 쓰기 위해서인지는 몰라도 말이야. 아무튼 마지막 선물이야. 다시 만나더라도 선물은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겠지." 무니의 기억 속에서 칼키와의 모든 장면은 다 선명했다. 그런데 어떤 까닭인지 '마지막 선물'이라고 말하던 그 목소리는 유독 더 그랬다. 무니는 계속 목걸이를 만지작거렸다. 칼키의 말처럼 무니가 먼 길을 떠난 이유는 여덟 조각으로 부서졌다는 '수리아의 검' 조각을 모두 모으기 위해서였다. '무엇을 위해?' '내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이것은 엄마가 자신에게 남긴 유언이기도 했다. 무니는 크게 숨을 내쉬었다.

"무슨 생각해?"

난다가 몇 시간 만에 처음으로 말을 걸어왔다. 무니는 자신의 목걸이를 쳐다보며 대답했다.

"이제 두 개니까 앞으로 여섯 개 남았다고.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

"아, 여덟 개를 언제 다 모을 수 있을 지도 모를 일이지만, 다 모은 후에 어떻게 해야 할지도 문제야. 연금술사라는 사람은 또 어떻게 찾지? 검 조각이야 물건이니 상관없지만, 사람은 어디로 움직일 지 알 수 없잖아. 그리고 연금술사를 만나서 검을 완성했다고 쳐. 그걸로 뭘 할 수 있다는 걸까."

무니는 희미한 달빛에 어렴풋이 보이는 친구의 얼굴을 쳐다봤다.

"아무튼 난다, 넌 걱정이 끝도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다보면 도대체 유리 영감이 왜 이걸 찾으라고 했는지부터 또 다시 시작해야 하는 거잖아. 그 문제가 왜 문제인지 생각하는 건 나중에 시간 남을 때 해. 우리는 답부터 찾자고. 일단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는 검 조각을 찾는 거잖아?"

"그래. 무엇보다 여기서 나가는 게 지금은 제일 큰 문제니까."

"그나저나 왜 아직까지 아무도 안 오는 거야. 이거 우리를 골탕 먹이려는 속셈 아니야?"

무니가 여전히 닫혀있는 문을 덜컹덜컹 밀어보며 말했다. 바로 그때였다. 두 사람이 동시에 서로를 쳐다보며 "쉿!"하는 소리를 냈다. 누군가 그들 쪽으로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던 것이다. 잠시 후, 끼익하며 문이 열렸다.

"칸타카!"

무니는 문이 열리자마자 들린 낯익은 숨소리에 자기도 모르게 큰 소리를 내고 말았다.

"쉿! 조용히 해. 이, 멍청아!"

문을 연 사람이 낮게 외쳤다. 분명 아까 낮에 먹을 걸 가져다 준 남자아이의 목소리였다. 이때 난다가 말했다.

"넌 아침에 칸타카 옆에 서 있던… 이름이 남카라고 했던가?"

등불 빛을 받은 소년의 작은 눈이 반짝했다.

"대체 왜 우리를 풀어주려는 거지? 무슨 수작이야?"

소년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무니가 의심스러운 말투로 물었다.

"그럼 너흰 너희들이 갇혀 있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얼른 이 짐승 끌고 멀리 도망치기나 해."

남카가 문 옆으로 비켜서며 길을 내주었다. 무니와 난다는 선뜻 그 문을 나서지 못했다.

"안 가고 뭐해? 지금 출발해도 멀리 못 갈 거라구. 게다가 이 주변은 거의 다 타버려서, 서두르지 않으면 몸 숨길 데 찾기도 힘들어."

"우리 짐은? 그건 어디 있어?"

난다가 물었다. 남카는 코웃음을 쳤다.

"뭔지는 몰라도 그게 너희 생명보다 중요한가보지? 알았어, 그럼. 너희들이 용의 먹이가 되든 말든 이제 상관 않겠어."

남카의 마지막 말에 무니가 깜짝 놀라 그의 팔을 붙잡았다.

"용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나 난다는 이제야 알았다는 듯 말했다.

"역시 그랬구나. 용이었어."

"난다, 넌 또 뭐야? 뭐라도 생각난 거야?"

난다는 일단 입구 쪽으로 걸어가, 소리 나지 않게 살짝 문을 닫고 돌아섰다.

"역시 그 불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었어. 그런 거지? 그런데 이 지역에 용이 있다는 정보는 어떤 책에서도 읽은 적이 없는데. 용은 사람이 살지 않은 곳에서만 살게 돼 있다구."

"맞아. 우리 마을에선 옛날 또 옛날이야기에도 용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어른들도 여기 저기 돌아다니는 이야기꾼에게서나 들을 수 있었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여기선 용도 큰 산불도 완전히 낯선 것들이지. 그러나 지금은 거의 매일 산이 불타오르고, 마을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어. 머릿속으로 그림조차 그려본 적 없는 재앙이 실제로 점점 다가오는 거야. 사람들이 이상해진 것도 어쩌면 당연해. 우리에겐 두려움의 원인도 낯선 것이지만, 두려움 자체가 낯서니까. 그래도 사람을 용에게 먹이로 바치다니, 이상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미친 짓이야."

"용에게 사람을 바친다는 건 무슨 소리야? 용은 사람을 먹지 않잖아?"

난다가 의아하다는 듯 물었다.

"그래? 그런 건 나도 잘 몰라. 용이 뭘 먹는지, 안 먹는지 말이야. 다만, 사하라라는 곳에 그 녀석이 나타났다가 우연히 여자애 하나를 삼켰는데, 그 후로는 불을 내뿜지 않았다는 거야. 물론 불이 번지는 바람에 그곳은 결국 광활한 사막이 되고 말았지만. 아무튼 그래서 사람들은 용에게 아이를 바치면 마을이 불타는 걸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어."

남카의 말을 다 들은 무니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뭐야. 일단 다른 건 내 알 바 아니라고 치자. 진짜로 화재예방이니 뭐니 하는 헛소리가 다 사실이라는 거야? 자기네 살겠다고 별 잘못도 없는 우리를 용의 먹이로 던져줄 셈이라고? 우리는 그냥 지나가고 있었을 뿐이란 말이야!"

무니의 목소리가 커지자, 깜짝 놀란 난다가 그의 등을 툭하고 치며 주의를 주었다. 그리고 남카에게 물었다.

"하지만 그러니까 더 궁금한데? 네가 왜 우릴 구해주려 하는 지 말이야."

잠시 망설이던 남카가 대답했다.

"마을 어른들이 다 이상해졌어. 그래도 자기네 아이를 내놓을 수는 없으니까 서로 눈치만 보던 중에 너희가 딱 나타나니까 다들 같은 생각을 한 거지. 애초에 정말 그런 일로 마을을 살릴 수 있을지 아닐지도 모르는데 말이야. 너희들은 이 마을하고 아무 상관없잖아. 저 녀석 말대로 그냥 지나가는 길이었을 뿐이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너희들은 너희 갈 길을 가는 게 맞는 거잖아."

남카가 다시 문을 열며 말했다.

"그러니까 들키기 전에 어서 떠나란 말이야."

열린 문 안으로 다시 희미한 달빛이 비추었고, 그들 사이에 정적이 흘렀다. 잠시 후 난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래도 우리 짐은 찾아 가야해."

남카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무니와 난다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두 사람이 서로를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거리는 모습만은 분명히 보였다.

어둠에 쌓인 마을에는 어젯밤과 마찬가지로 적막만이 감돌았다. 차이가 있다면 아주 간혹 가다 불을 밝힌 집이 있다는 것 정도였다. 세 소년과 칸타카는 발소리를 죽인 채 어딘가로 향해 가고 있었다. 무니는 고작 하루가 지났을 뿐인데도, 며칠은 지나간 것 같은 기분이었다. 몹시 불안한 느낌도 들었다. 그때 앞서 걸어가던 남카가 어떤 집 앞을 지나가다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다.

839호 | 불자정보

TEL 02) 2004-8215(直)
732-1522
FAX 02) 737-0696

사 찰 안 내
- 위치: 전남 나주시
- 총평수 637평 전건축물 목조
- 대웅전 30평, 요사채 20평, 공양간 10평, 해우소 3평반, CC카메라 시설
- 사찰 주변 계곡 물흐름
- 20년생 대봉나무 41일주
- 무안-광주간 고속도로 IC 5분거리
- 1호선 국도 8분
- 가액 5억 꼭 하실분만 전화요망

010-6375-0108

포교원 및 명상원(급)안내
- 위치: 경기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6층건물 3층
- 평수: 80평
- 보증금: 4,000만원 / 월70만원
- 약판이천세대 아파트밀집지역에있는메인대상가.
- 포교활동 최상급 지역(주변 불자 많음)
- 인연되시는분 상담후 형편에 맞게 절충 가능

010-2425-0427

포교원안내
- 위치: 경남 산청군 단성면 백운리 계곡 접
- 면적 대지 200평
- 규모: 요사채(슬라브한채 약 30평 정도 방3개 주방1 대웅전 슬라브 (약 30평정도) 1채 방4칸, 주방1, 화장실1,2층 대웅전 약 15평정도 산신각 1채, 용왕당1채, 건축물 관리대장 등재
- 가액: 2억 오천만원 시세이하임

011-839-1285

포교원(급)안내
- 위치: 경기 군포시 당동
- 가액: 1천만원 월 80만원
- 시설비 최저양도
- 면적 65평 방8개 법당공양간 및 시설완비
- 주지소임관계로 급 양도

031)427-474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경주시
- 평수 : 410평 (대지)
- 대웅전, 산신각, 요사채
- 방4개, 욕실3개, 주방, 거실
- 생활권은 포함
- 굿당으로도 사용가능함
- 가액: 3억 1천만원(조절가능)
- 융자 : 1천 2백만원

010-6527-4004
053)857-1080

임법당안내
- 위치: 경남 창녕군 소재
- 평수 147평, 실사용평수 200평
- 가액: 5천만원
- 시설집기일체 포함

010-8751-3805

암자터안내
- 위치 : 경기도 이천 덕평IC부근
- 평수 : 1800평
- 가액 : 평당 50만원

010-2267-0944

포교원안내
- 대전 대흥동 대전여중옆
- 2층, 3층 50평
- 화장실2, 방 4, 부엌, 옥상사용, 주차가능
- 보증금 3천만원, 월 50만원

010-3214-1255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찰화재보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1
※ 원거리일 경우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365 좋은인연
사찰대출안내
31년의 역사와 자산700억원을 자랑하는 형산새마을금고는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불교은행입니다.
새로운 불사나 사찰매매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비싼 이자를 물고 계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전화주시면 좋은 인연이 될 것 입니다.
형산새마을금고의 사찰대출은 이런점이 좋습니다~
❶ 1억원 대출시 월이자가 60만원으로 저렴합니다 !
❷ 위약금없이 형편에 따라 조금씩 갚으실 수 있습니다 !
❸ 대출기간은 5년이며 만기시 연기가 가능합니다 !
❹ 단체명의사찰과 종단 소속사찰도 대출가능합니다 !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365 친절상담
상무 이강욱 ☎ 010-9842-4200
과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